

해수부-네이버, 여객선 운항정보 실시간 제공 서비스 등 위해 협력한다

- 7. 10.(월) 환경·사회·투명경영(ESG) 활성화를 위한 업무협약 체결

해양수산부(장관 조승환)와 네이버는 7월 10일(월) 해양수산 분야의 지속 가능한 발전과 기업의 환경·사회·투명경영(ESG)* 활성화를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협약식에는 조승환 해양수산부 장관과 채선주 네이버 대외·ESG 정책 대표가 참석하였다.

* 기업이 환경보호에 앞장서며 사회적 약자에 대한 지원 등 사회공헌 활동을 하고, 법과 윤리는 철저히 준수하는 투명한 경영활동

이번 업무협약을 통해 양측은 △연안여객선 실시간 운항 정보 연동 및 제공, △해양 안전 정보(유해해양생물, 이안류, 방사능, 해수온 등)에 대한 접근성 향상, △ 해양수산부 유관기관이 운영하는 대국민 편의 서비스의 '네이버 아이디 로그인' 연동, △그 외 해양환경을 비롯한 해양수산 분야 전반의 서비스 연계 및 정책 홍보 등을 위해 본격적으로 협력할 계획이다.

연안여객선 연평균 이용객은 1천 300만 명에 달하지만, 다른 대중교통과 달리 실시간 운항 정보가 포털 누리집에 나오지 않아 그간 이용에 불편이 있었다. 이에, 앞으로 네이버 지도에서 연안여객선 실시간 운항 정보를 확인할 수 있도록 하여 섬 주민·관광객 등 이용객의 편의를 높이하고자 한다. 또한, 해양과 관련한 각종 안전정보를 포털 누리집에서 확인할 수 있게 하여 기후변화로 인한 유해해양생물 증가, 해수온 상승 등 문제에 대한 경각심을 높이고, 여름철에 안전하게 바다를 이용할 수 있도록 할 예정이다.

조승환 해양수산부 장관은 “이번 협약을 통해 바다와 관련된 정보를 좀 더 쉽게 확인할 수 있게 되어 국민들의 편의가 높아질 것으로 기대된다.”라며, “이를 계기로, 해양수산 분야의 환경·사회·투명경영(ESG) 활성화에 더욱 많은 기업이 참여하게 되기를 희망한다.”라고 말했다.

담당 기관	정책기획관	책임자	팀 장	전찬수 (044-200-5215)
	장기전략데이터기획팀	담당자	사무관	김우진 (044-200-5126)
	네이버	책임자		한동근 dk.h@navercorp.com

□ 추진배경

- 해수부 데이터를 네이버와 공유하여 국민의 정보 접근성을 강화하고, 환경·지역상생 등 해양수산 전반에 대한 포괄적 ESG 협업 진행

□ 행사 개요

- (일시) '23.7.10.(월) 11:00~11:35 / 네이버 1784(제2 사옥)
- (장소) 네이버 1784(경기 분당) 27층 VIP홀
- (참석자) ^{해수부} 장관, 정책기획관, 장기전략데이터기획팀장 등
^{네이버} 채선주 대외·ESG 정책 대표, 임동아 ESG 담당 이사 등

□ 협약 내용

- ① 연안여객선 실시간 운항 정보 연동 및 제공
- ② 해양 유해 생물, 파도, 이안류, 해수면 높이, 방사능, 해수온 등 해양 관련 안전 정보 접근성 강화
- ③ 해수부 유관기관이 운영하고 있는 대국민 편의 서비스의 “네이버 아이디로 로그인하기” 연동
- ④ 그 외 해양환경 등 해양수산분야 전반에 대한 서비스 연계 및 정책 홍보

□ 세부 일정

시간(잠정)			내 용	비 고
7.10 (월)	11:00~11:15	15'	■ 사전환담	
	11:15~11:17	2'	■ 개회 및 참석자 소개	사회자
	11:17~11:19	2'	■ 업무협약 내용 설명	사회자
	11:19~11:25	6'	■ 인사 말씀 (각 3분) * 해수부 장관 채선주 대외 ESG 정책 대표	해수부 장관 채선주 대표
	11:25~11:30	5'	■ 협약서 서명	-
	11:30~11:35	5'	■ 기념 촬영 및 폐회	-